

체계 · 기능 언어 이론의 이해

(Understanding of Systemetic-Functional Linguistics)

정재훈*

요약

본고는 Halliday로 대표되는 체계 · 기능론의 주요 이론적 개념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체계 · 기능론의 이론적 발전과정, 체계 · 기능론에서의 다기능, 언어사용역(Register)과 언어문화역(Genre)에 대하여 다음을 논의한다.

- a) 체계 · 기능론의 이론적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Scale & Category Grammar, Systemic Grammar, 그리고 Functional Grammar의 이론적 특징과 개념 및 주요 용어를 살펴본다.
- b) 체계 · 기능론의 언어철학적 관점과 다기능(metafunction)으로 대표되는 그 이론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본다.
- c) 언어사용역과 언어문화역이 무엇인가를 살펴 보고, 형식론과 기능론의 특징을 비교해 본다.

* School of Languages and Linguistics
Griffith University, Australia

0. 머리말

언어는 형태와 의미로 구성된다고 소쉬르가 주장한 이후로, 언어 연구를 위한 대표적 접근 방법은 형태에 대한 관심 또는 의미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특히, 의미에 대한 관심은 의사소통상의 언어기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바, 언어학에서는 이를 기능론이라 부른다. 기능론적 언어학은 소쉬르 이래 유럽의 다양한 학파들에 의해서 계승 발전되어 왔는데, 그 중에 Halliday를 비롯한 후기구조주의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된 언어이론이 체계·기능문법론(Systemic-Functional Grammar, 이하 SFG라 함)이다.

SFG의 이론적 틀은 언어를 사용적 관점에서 보는 소쉬르의 언어이론과 프라그 학파의 언어이론을 수용한 런던학파의 Firth등의 언어관에서 비롯되는데, 이러한 언어관의 수용자세로 인하여 SFG 이론은 초기에는 neo-Firthian theory (신 휘츠 언어론)라고 불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성문법이론의 등장에 따른 대립적 발전과정을 거치는 동안, 언어의 기능론적 기술방법과 이론틀을 제시하게 된 1970년대 이후부터 체계·기능 언어론(Systemic-Functional Linguistics)이란 독자적 이론체계를 수립하기에 이르렀으며 형식론에 대비되는 기능론의 대표적 이론중의 하나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체계·기능론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그 이론의 개념을 살펴 보고, 그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론이 영어분석에 적용되어지는 몇가지 예를 보고자 한다.

유럽의 전통적인 기능론적 언어관은 언어를 사회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즉, 언어를 한 문화 속에서 사용환경에 따라 기능적 의미를 갖기 위하여 선택된 하나의 체계(system)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언어를 하나의 체계(system)로 보는 유럽의 기능론적 언어전통에 따라

Firth는 System-Structure Theory를 주창하게 되었고, 이를 계승한 Halliday는 Firth의 이론을 발전시켜 Scale & Category Theory(이하 SCT라 약칭함)를 주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생성주의 이론의 등장에 따라, 의미적 심층구조(semantic deep structure)에 대한 해석을 요구 받기에 이르자, Halliday는 체계(system)를 보다 형식화하여 “문법이란 의미를 갖기 위하여 선별적으로 선택되는 하나의 체계망(a system network)”이라 보게 되었다. 즉, Halliday는 생성문법의 심층 구조에 준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SCT에 두 개의 개념, 즉, 체계망(a system network)과 의미적 선택(meaningful choice)을 도입하여 체계론(Systemic Theory)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Halliday는 체계망과 관련된 의미는 다기능적(meta-functional)인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다기능이론에 기초한 기능론(Functional Theory)을 제시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체계론과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체계·기능론(Systemic-Functional Theory; 이하, SFT라 약칭함)을 주창하게 되었다.

SFT를 통하여 Halliday는 언어의 보편성 보다는 일반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언어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며, 보편성을 갖는다고 주장되는 언어형식(category)들도 언어 보편성이란 측면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기호체계(a semiotic system)로서의 언어에 내재된 일반적인 고유자질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Halliday는 언어의 일반성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가설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SFT의 핵심적 틀인 ‘다기능 가설(Metafunctional Hypothesis)’이다. 다기능 가설이란 ‘모든 언어의 내용체계(the content systems)는 삼분적 구성성분으로 (즉, ideational component, interpersonal component, 그리고 textual component)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보편성이 아닌 언어의 일반성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SFT에서는 개별 언어를 기술함에 있어서 그

언어만을 빠르게 기술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문법을 전제한다. 또한, 언어의 의미는 동시적이며 다기능적으로 말뭉치(wordings)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엉겨진다는 점에서, 하나의 가능문법이 곧 한 언어의 중추적 형성 단위(the central processing unit of a language)라고 본다.

한편, SFT에서는 하나의 기호체계로서 언어체계를 다음과 같은 층위체로 본다.

	일반용어 General terms	언어학적 용어 Technical Terms	분석 및 기술 단위 Unit of Analysis /Description
내용 CONTENT	의미 meanings	(담화) 의미론 (discourse) semantics	텍스트 text
	말(뭉치) wordings	어휘문법 lexico-grammar	절 clause
표현 EXPRESSION	소리/글 sound/letters	음운론/철자론 pnonology/graphology	음소/철자소 phoneme/graph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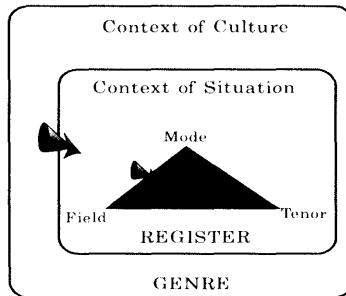
즉, 언어의 내용은 어휘문법(lexico-grammar)과 의미론(semantics)에 의하여 하나의 의미층위를 구성하며, 이러한 의미체계는 음운론(phonology) 또는 철자론(graphology)에 의하여 표현층위로 나타난다. 또한, 분석내지는 기술의 단위를 담화의미론(Discourse Semantics)의 경우는 텍스트 전체에 나타난 의미까지로 보며, 어휘문법의 경우는 형태소, 단어, 구, 절, 복합절까지 그 단위로 한다. 여기서, 어휘문법이란 종래의 통사론이라 불렀던 좁은 의미의 문법(grammar) 개념과 어휘(vocabulary)가 합쳐진 문법을 말하며, 언어층위 개념으로서의 의미론이란 단어들의 의미가 아닌 한 언어에 있어서의 구성성분의 전체적인 의미체계를 말한다. 따라서, 의미(meanings)란 말뭉치(wordings)속에 기호화되는 것으로 보고, 말뭉치¹⁾란

추상적 기호체로서의 ‘문법적 연결체(grammatical sequences)’ 또는 ‘발화 통합체(=신테그마, syntagms = syntagma)’로 본다.

한편, 말뭉치를 추상적 기호체로 볼 때, 의미와 추상적 기호체와의 관계는 임의적인(arbitrary) 것이다. 따라서, Halliday는 임의적이고 추상적인 기호체의 구조(structure)와 그 구조와 관련된 의미가 갖는 다양한 기능(function)의 관점에서 의미창출의 체계적 과정을 의사소통의 맥락속에서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문법을 추구한다. 여기서 Halliday는 의사소통의 맥락은 언어사용자가 속한 상황적 맥락(Context of Situation)과 문화적 맥락(Context of Culture)과 직결되는 것으로 본다.

SFT에서는 상황적 맥락을 Register라 부르고, 이를 언어 체계망(a language system)의 상위층위로 보며, 문화적 맥락을 Genre라 하여 Register의 상위층위로 구분한다. 이들의 관계는 <도표 1>로 나타낼 수 있다.

도표 1: Genre and Register in relation to language



- 1) 영어의 경우, 말뭉치(wordings)는 어휘항목(lexical items: eg. 동사, 명사등), 문법항목(grammatical items: eg. the, of, if 등), 어휘문법중간항목(lexico-grammatical items: eg. 전치사)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도표 1>에서 보이는 것처럼, SFT에서는 언어사용의 총체적인 면을 언어분석과 언어기술의 대상으로 본다.

1. 체계·기능론의 발전 과정

의미와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의사소통상의 언어 기능에 대한 관심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체계·기능론자들은 언어사적인 관점에서 ‘기능적 후기구조주의자’로 자처한다. 이는, 언어의 공시성과 통시성을 구분하고, 언어는 한 상황의 특정한 맥락 속에서의 발화인 **빠롤**(= the utterance in a specific context of situation)과 언어 체계(the system)인 **랑그**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 소쉬르의 언어관을 받아들이고, 이어서, 1930년대와 40년대 초, 문학을 다루기 위하여 소쉬르의 체계(system)를 받아 들여 ‘기능적 구조주의’ 모델을 고안하려 노력한 프라그 학파의 기능적 구조주의에 대한 발상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Halliday의 언어관은 생성이론과 대비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이 비교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보편적인 인간 언어 능력을 강조하는 Chmosky의 보편문법처럼 문화적 특수성(cultural specificity)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 언어의 역할은 사회속에서의 신분(status)과 힘(power)의 상관관계속에서 수행된다고 본다. 셋째, 생성론자들 및 프라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언어는 체계적이며 구조적이라고 보며, 이것들은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기술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프라그 학파 이론에서의 문맥 중심 이론을 주목하여 언어의 기능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다섯째, 문맥 중심의 이론이라는 점에

서, 모든 언어는 체계, 구조, 기능이라는 언어 일반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만, ‘개개의 언어는 반드시 그 언어의 자체적 문법 기술방식에 의해서 기술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이러한 Halliday의 언어관은 세 번의 이론적 변천을 통하여 구체화 되는데, 그의 이론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961년	Scale and Category Grammar
1966년	Systemic Grammar
1970년	Systemic-Functional Grammar
(1985년	Functional Grammar)

1.1 Scale & Category Grammar

Scale & Category Grammar(=이하 SCG라 약칭함)는 기본적으로 통사적 구조에 기초한 이론으로 그 이론적 틀은 다음과 같다.

Scale and Category Grammar

<u>Scale</u>	<u>Category</u>
Rank ----->	Unit
Delicacy ----->	Class
Exponence ----->	Structure
	System

위의 SCG 모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Scale 은 3개의 성분으로 Category는 4개의 성분으로 구성되는데, 그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Rank란 단위(units)간의 위계(hierarchy of units)를 말하는 것으로 Rank를 구성하는 단위는 다음과 같이 5개가 있다고 본다.

sentence > clause > group > word > morpheme

이러한 Rank와 관련하여 Halliday는 두 가지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Total Accountability’와 ‘Rankshift’에 관한 것이다. ‘Total Accountability’란 텍스트 상에서 하나의 문장은 절로, 절은 구로, 구는 단어로, 단어는 형태소로 순차적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Rankshift’란 각 구성단위(Unit)가 상호 작용시에 작용의 방향은²⁾ 항상 하향성(Always downward)을 가지며, 구성단위의 순차적인 단계를 건너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단어층위는 구(phrase)층위에서만 작용하지, 구를 건너서 절(clause)층위에 직접 작용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Delicacy란 Category의 Class와 관련된 것인데, 일차적으로 절문장을 분석수준으로 다루고, 이차적으로 텍스트 상의 내용요소들의 ‘상세성(how much in details)’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말한다. 예로 (1)의 경우를 보자.

- (1) a) She hired a lawyer.
b) She was a lawyer.

일차적 분석을 위해, (1a)와 (1b)의 절문장 단위를 보면, Subject[^]Predicator[^]Complement 라는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이차적으로 complement인 a lawyer를 살펴 보면, 이들은 Rank면에서 동일한 것이지만 보어(Complement)로서의 내용은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내용면에서 (1a)는 외연 보어

2) 방향성은 syntax는 ‘grammar above the word’이고 morphology는 ‘grammar below the word’라는 전통적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통사론은 단어와 항상 하향성(downward) 관계에 있고, 형태론은 통사론에 대하여 상향성(upward)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Total Accountability의 방향성이 설정됨.

(extensive complement)이고 (1b)는 내연 보어(intensive complement)라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Delicacy란 구성성분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설정된 scale이다.

Exponence란 추상적 개념을 실제적인 말이나 글로 나타내주는 Scale를 말하며, category의 structure와 관련된 것이다. 즉, system의 최종 마디에 실제로 나타나는 표층요소(exponent)와 관련된 설명을 위하여 설정된 scale이다.

Category의 system이란 구조에 있어서 어떤 한 점에서 대조되는 class의 집합체를 말한다. 예를 들면, 단수와 복수를 나타내는 class가 수라는 점에서 대조를 이룰 때, 이들은 수 체계(Number System)를 구성하는 집합체인 것이다. 예로 (1a)와 (1b)의 차이는 절의 이행성(Transitivity)과 관련하여 크게는 절 체계(Clause System)에서 (특히, major clause system에서) 작게는 보어체계(Complement System)상에 나타나는 차이로 하겠다.

하지만, SCT는 구조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불완전한 이론이었다. 즉, 구조면에서 ‘Total Accountability’가 적용되지 않는 예가 (2)와 (3)에서처럼 나타남으로써, 구조에 대한 재분석이 시도되었다.

- (2) He went to the bank.
 = He went AP[to NP(the bank)]
- (3) Kim and her wife won the title.
 = NP1[Kim and NP2(her wife)] won the title

(2)를 보면, ‘Total Accountability’라는 규칙에 벗어나, 부사구내에 명사구가 작용하고 있고 이것들이 종속관계(hypotax)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에서는 명사구내에서도 2개의 명사구가 서로 등위관계(paratax)에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등위관계와 종속관계는 문장단위를 구성하는 절 성분단위(clause units)에서만 인정하던 구조

적인 결합관계였다. 이런 면에서, Halliday는 Rank상의 구성성분(unit)의 모든 구조에 복합구조를 인정하여 구조를 일반구조(Multivariate)³⁾와 복합구조(Univariate)⁴⁾로 구분한다. 그 결과, Rank Scale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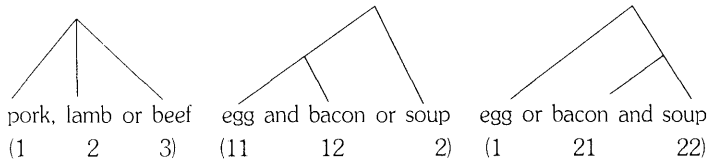
Multivariate Part of Scale	Univariate Part of Scale
Clause	Clause Complex
Group	Group Complex
Word	Word Complex
Morpheme	Morpheme Complex

위와 같이 성분단위를 2개로 구분한 결과, 일반구조(multivariate)만이 ‘Total Accountability’를 따르며, 복합구조(univariate)는 ‘Total Accountability’를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복합구조에서의 연결관계도 등위(paratax)와 종속(hypotax)의 관계로 설명하게 되었다. 이론적으로 등위관계는 무한구조(open-ended)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 2 3 ∞’로 표시하며, 실제로 묶기(bracketing)를 할 때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의미적으로 다른 3개 정도의 등위구조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3) 일반구조(Multivariate)란 개개의 구성요소가 각기 다른 구조적 기능을 갖는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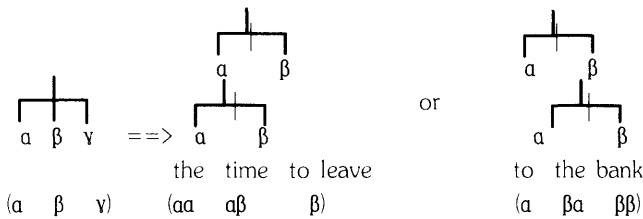
4) 복합구조(Univariate)란 등위적 관계(Paratax)내지는 종속적 관계(Hypotax)를 갖는 구조를 말한다.

예) Paratax의 예



종속관계 (Hypotax)의 경우, 영어에서는 이론적 설명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의미적으로 다른 2개의 종속구조를 일반적으로 보며, 'α' 나 'β'로 표시한다.

예) Hypotax의 예



이렇듯, SCT는 표층구조의 기술에 치우친 이론이었으나, 생성이론의 등장에 따라 심층구조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가 과제로 떠오르게 되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Halliday는 Systemic Grammar를 제안하게 된다.

1.2 Systemic Grammar

Systemic Grammar(SG)의 핵심은 체계(system)를 생성이론의 심층구조에 대응하여 의미적 선택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것이다. 의미

적 선택에 의하여 체계가 구성된다는 측면에서 SG는 Choice Grammar라고 불려지기도 한다. SG에서 체계란 하나의 입력조건(an entry condition)하에서 가능한 선택 자질의 집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Gunther Kress(1976)는 SG의 특성을 6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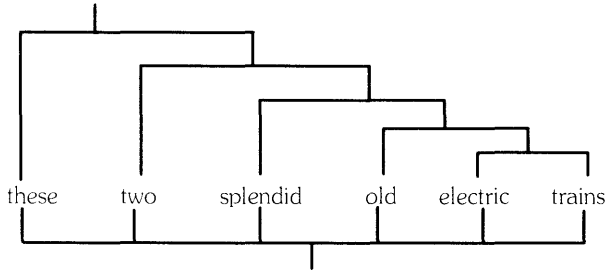
첫째, SG는 선택이란 개념(a notion of choice)에 기초한다. 즉, 한 언어의 화자는 동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일련의 다른 선택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언어 선택의 개념을 형식화 한 것이 곧 체계(system)이며, 체계의 결합체인 체계망(the network of systems)이 곧 문법이라고 본다. 이러한 체계망(system network)은 언어 일반성의 관점에서 개방적(open ended)이지만, 개별 언어 문법으로서의 체계망은 폐쇄적(closed)이다.

둘째, 한 구성성분(문장, 절, 구 등등)의 기술은 단지 화자가 만든 선택 목록(list)일뿐이며, 한 언어에 있어서 그 언어의 체계망이 그 언어에 적절한 선택요소들의 가능한 결합을 결정해 준다.

셋째, 화자가 선택한 것들이 구조로서 구현되며, 그 구조는 분류표시(labelling: 내용에 대한 기술)와 묶기(bracketing: 형태에 대한 기술)로 나타낼 수 있다.

넷째, 묶기(bracketing)는 최대 묶기(maximal bracketing = immediate constituent analysis)와 최소 묶기(minimal bracketing = string (or ranked) constituent analysis)로 구분할 수 있는데, SG에서는 최소묶기(minimal bracketing)를 택한다. 최대묶기(b)와 최소묶기(a)의 관계는 다음처럼 비교하여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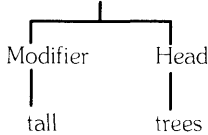
(a) 최소묶기 (minimal bracketing = string (or ranked) constituent analysis)



(b) 최대묶기 (maximal bracketing = immediate constituent analysis)

다섯째, 분류표시(labelling)는 품사분류표시(class labelling)와 기능분류표시(functional labelling)로 나눌 수 있다. 품사분류표시(class labelling)란 동사(verb), 명사(noun), 전치사구(prepositional phrase), 명사구(noun clause)등으로 이름 붙히는 것을 말하며, 기능분류표시(functional labelling)란 주어(Subject), 목적어(Object), 수식어(Modifier), 머리어(Head) 등으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품사분류표시(a)와 기능분류표시(b)는 다음과 같이 비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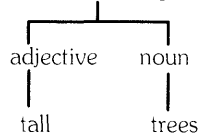
(a) Functional Labelling



(group)

(word)

(b) Class Labelling



여섯째, SG에서는 선택요소들과 체계(system)와의 관계를 기술해 주는 서술문(statement)이 필요하다. 즉, 언어를 구성하는 성분요소들의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는 기호적으로 표시해 놓을 수 있지만, 이러한 관계를 상세히 설명해 주는 서술문이 SG에서는 사용된다.

SG에서 의미자질은 통로(path)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것이 곧 심층문법이란 것이며, 통로(path)를 통하여 나타난 의미자질이 구현규

칙(realisation rule)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 표층구조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예로, major, indicative, transitive한 하나의 절을 볼 때, 그 절이 의미를 갖기 위한 선택이 심층에서 이루어지며, 표층은 구현규칙에 의하여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Halliday는 의미에 대한 문제가 곧 기능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렇듯 기능의 관점에서 언어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Halliday 이론은 기능문법(Functional Grammar), 혹은 SG에 기능적인 면이 강조되었다는 관점에서 체계·기능문법(Systemic Functional Grammar = SFG)이라 불려지게 된다.

1.3 Systemic Functional Grammar

SFG의 핵심은 다기능적 가설에서 출발한다. 즉, SFG에서는 언어의 다기능과의 관계속에서 체계망(system network)이 재해석된다. 따라서, SFG에서는, SCG나 SG의 체계들에서의 scale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category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Systemic Functional Grammar

<u>Systemic Grammar</u>	<u>Systemic Functional Grammar</u>
Rank --> Unit	-----> Constituent Structure
DelicacyClass	-----> Class
Exponence	Structure -----> Function
	System Network --> System Network

위의 SFG 틀은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기능적 가설에 기초하여 기능적 관점에서 의미에 중점을 두어 구조를 살핀다.

둘째, scale의 개념은 SG와 변동이 없으나 category에 대한 대한 재해석이 기능적 관점에서 시도된다.

셋째, 개개의 unit가 단지 구조적 특징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성분결합을 위해서 각기 다른 구조적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unit를 성분구조(constituent structure)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성분결합(Constituency)를 통하여 unit들끼리 결합된다는 점에서 최소목기가 Total Accountability이론과 Rank Shift이론을 대신한다. 예로, SFG에서는 ‘쓰기에서의 가장 작은 단위는 (알파벳)글자이다’라는 말에서 ‘쓰기의 가장 작은 단위’란 말 대신에 ‘쓰기의 최종적 구성소(the ultimate constituent of writing)’란 말을 쓴다.

넷째, category상에서 구조를 기능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다섯째, 결국, SFG란 Systemic Grammar와 Functional Grammar의 통합적 명칭이라는 점에서 시사되는 바와 같이, SFG의 핵심은 체계망(system network)과 다기능(metafunction)과의 관계로서 파악된다. 즉, 선택(choice)에 의하여 형성되는 체계망(system network)내의 의미적 요소를 고려하여 구조를 기술하는데 주안점을 둔 SG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언어사용상의 다기능(metafunction)적 측면을 기능적 기술을 통하여 언어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SFG라 하겠다. 이런 면에서 SFG는 하나의 통합문법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SCG나 SG에서는 언어가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에 기초하면서도 언어의 단위 문장의 구조기술에 보다 많은 노력을 보인 경향이 있다. 하지만, SFG에서는 언어를 사용맥락의 측면에서 기술하려 노력한다. 즉, 언어의 다기능적 요소를 언어사용역(Register)과 언어문화역(Genre)에까지 확대하여 언어를 하나의 기호체계(a semiotic system)로서 이해한다. 이런 점에서 SFG에서는 “언어를 언어체계(Linguistic System)와 언어사용역(Register)의 관계에 대한 상호 규정

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며, “문화를 기호체계와 사회체계의 관계에 대한 상호규정체”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 언어사용역과 언어문화역, 그리고 언어에 대한 대한 관계는 <도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2. 체계 · 기능론에서의 다기능(Metafunction)

언어사용이라는 논점에서 출발하며 체계기능문법(Systemic-Functional Grammar)이라고 명명한 Halliday의 언어 철학적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는 체계적이라는 것이다. 즉, “발신자(화자)가 메시지를 말 또는 글로 기호화(encoding)하여 접수자(청자)에게 보내고 접수자는 받은 메시지를 해독(decoding)한다”는 전체적인 상황맥락에서 언어를 바라본다. 결국, “언어 자체속에 주어진 체계적인 구조가 (an enabling, systemic structure) 있다”라는 전체의 구조주의적 견해를 따른다. 한편, 의미와 구조의 관계를 볼 때, 구조주의자들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구조를 살펴야 한다’고 봄으로써 구조가 의미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후기구조주의자들 즉, 체계기능론자들은 “의미가 구조를 결정하는 것으로 언어구조란 단지 사람을 통해서 말해지는 것”이라고 본다.

둘째, 언어는 기능적이라는 것이다. 즉, 언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구로서 보는 견해로서, 이러한 언어관이 갖는 의미는 ‘인간은 언어의 주어진 구조를 순수하게 기능적인 측면에서 (심미적인 기능까지 포함한 측면에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언어는 하나의 기술 가능한 문법을 갖는다는 것이다. 하나의 기술가능한 문법이란 우리로 하여금 ‘의사소통의 기능적 구조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하게 해 주는 문법을 말한다. 즉, 문법이란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에 대한 기능적 기술을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단순한 기술이 아닌 기능적 기술이란 점에서 SFG가 전통문법과 다르며, 또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규칙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SFG는 규범 문법과도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상의 3개의 관점을 종합해 볼 때, Halliday가 추구하는 SFG는 ‘기능적 의미창출의 체계 문법(a grammar of the system of functional meaning-making)’이라 볼 수 있다. 즉, SFG는 어떤 의사소통 맥락속에서의 의미창출의 체계적 과정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문법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Halliday이론이 ‘언어에 대한 의사소통적 접근방법’이라 불려지기도 한다.

한편, Halliday는 언어사용의 관점에서 하나의 텍스트(text)상의 모든 발화는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3개의 다기능(metafunction)에 의해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즉, 하나의 발화의 문맥 구성 성분과 이에 관련된 다기능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본다.

- a) Who the participants are in relation to each other = the Interpersonal Function
- b) What they are talking about = the Ideational Function
- c) the role of language in their communication = the Textual Function

다시 설명하면, 대인관계적 기능(Interpersonal Function)은 문맥 출현자들의 역할 관계를 나타내 주는 기능으로 영어의 경우, 서법(Mood)이나 억양(Intonation) 체계와 관련을 갖는 기능이다. 개념적 기능(Ideational Function)은 발화의 경험적 내용에 대한 기능으로

영어의 경우, 절의 이행성(Transitivity)등과 관련하여 드러나는 기능이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기능(Textual Function)은 언어 구성성분들 간의 순서내지는 연결 방식에 대한 기능으로 영어의 화제(Topic), 주제(Theme), 유표성(Markedness), 결속성(Cohesion) 성분등과 관련하여 살펴 볼수 있는 기능이다.

2.1 대인관계적 기능(INTERPERSONAL FUNCTION)

하나의 발화에 있어서 대인관계적 기능(Interpersonal Function; 이하 InF라 약칭함)이란 화·청자들의 역할을 나타내 주기 위하여 문법적 선택과 어휘 선택을 가능케 하는 기능이다. 영어의 경우를 예로 보면, 이 기능은 영어의 서법 체계(the grammatical Mood system)를 구현하거나, 입말의 경우는 억양체계(Intonation System), 글의 경우는 구두법(Punctuation)과 관련된 기능이다. Halliday는 구어에서 영어의 억양의 쓰임은

- ㉠ 화·청자간의 상하/종속 관계, 또는
- ㉡ 청자에 대한 분노, 좌절, 흥분, 친근감등의 화자의 감정 상태, 혹은
- ㉢ 서법(Mood) 또는 서법의 대체 효과

를 갖는다고 관찰하고 이러한 기능의 분석을 시도한다. 영어 억양 분석과 서법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Key Words)은 다음과 같다.

2.1.1 억양 분석을 위한 주요용어

- a) Tone (음조)⁵⁾: Halliday는 영어에는 5개의 주요 음조와 2개의

5) Halliday는 영어의 음조는 의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능적 기술이 가능하

복합 변음조가 있다고 보고 이를 숫자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5개 주요 음조: Tone 1, Tone 2, Tone 3, Tone 4, Tone 5

2개 변음조: Tone 13 (= Tone 1 plus Tone 3)

Tone 53 (= Tone 5 plus Tone 3)

- b) Syllable (음절): 하나의 모음을 포함하는 소리 단위
- c) Syllabic Foot (음절 운각): 음절 리듬에 의해서 구분되는 한개 이상의 음절로 구성됨
- d) Salient Syllable (강세음절): 강세를 포함하는 음절
- e) Tonic Syllable (주음절): 강세와 의미(content in the clause)를 포함하는 음절
- f) Tonic Group(음조군): 하나의 절(clause) 내에서의 역량의 기능 단위로서, 자연스러운 휴지(pause)를 이루는 범위내의 음절

다고 보고, 각 음조 표시 숫자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고 본다.

- a) Tone 1: 평서문, Wh-의문문: falling intonation
- b) Tone 2: non-Wh-의문문: Yes/No 의문문, 평서의문문: strong rising intonation
- c) Tone 3: 마무리되지 않은 일이나 불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됨: slightly rising pattern
 - ㄱ) 화자가 청자의 의견을 구할 때;
 - ㄴ) 화자가 약간 신경이 곤두서 있거나 확답을 원할 때;
 - ㄷ) 화자가 무엇인가 나열하며 말할 때;
 - ㄹ) 화자가 문중에 말을 하다가 끊을 때;
- d) Tone 4: 누구를 부르거나 특별히 강조할 때: slightly rising-falling-rising pattern
- e) Tone 5: 감탄이나 놀람을 나타낼 때: (기식음이 섞여서 시작되는 경향이 있음): Tone 1과 유사하나 rising-falling pattern
- f) Tone 13: 명령문 (주로 부정명령문)에서 사용됨; 간청하거나 설득할 때 사용함
- g) Tone 53: 자격에 대한 주장이나 놀람을 나타낼 때 사용함

들의 집합을 말하며, 음조군은 의미를 고려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 g) Clause: 억양 분석시, 절을 억양분석을 위한 기능적 의미의 기본 단위로 본다.

2.1.2 영어 서법(Mood) 분석을 위한 주요용어

Halliday는 화자와 청자의 역할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의해서 또는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기능적 관점에서 영어의 서법을 재해석한다. 즉, 의문문과 평서문의 경우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며, 명령문이나 제안문의 경우는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영어의 서법을 기술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영어의 Mood는 하나의 절에서의 주어(Subject)와 정형(Finite)의 관계로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때 이러한 하나의 절(문장)에서의 대인관계적 기능주어(Interpersonal functional subject)는 그 절(문장)의 문법주어(grammatical subject)와 일치한다는 주장도 하게 된다. 이렇게 영어의 서법을 기능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a) 부가어미(Tag Ending): 영어의 서법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문법장치이다.
- b) 서법(Mood): Subject와 Finite로 이루어지는 요소를 말한다.
- c) 주어(Subject): 하나의 절에서 언급되어지는 것에 대한 말이나 말뭉치를 말한다.
- d) 정형(Finite): 시제나 상을 나타내는 동사군의 한 부분을 말한다.
- e) Residue: 하나의 절에서 Mood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한다.

- f) Predicate: Finite를 제외한, 즉, 시제나 상을 제외한 동사군의 나머지 부분을 말한다.
- g) Complement: 행위의 직접 목적어(the complements of verbs)나 have동사와 be동사의 보어를 말한다.
- h) Adjunct: 간접목적어나 장소, 시간 또는 태도를 나타내는 부수어들(circumstances of place, time, and manner)을 말한다.
- i) Z Clauses: subject, finite or predicate가 없는 절이나 또는, 절 속에 독립적으로 쓰인 인사나 호칭등을 말한다.

2.2 개념적 기능 (IDEATIONAL FUNCTION)

Halliday 이론의 중심(centrepiece)을 이룬다고도 하는 개념적 기능 (Ideational Function; 이하 IdF라 약칭함)이란 하나의 발화에 있어서 경험적 내용과 논리적 내용에 관한 것이다. Halliday는 인간은 내적 · 외적 세계의 경험은 과정(process), 과정의 참여자(participants), 과정의 장면(circumstances)이라는 3요소에 의하여 파악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Halliday는 하나의 절에서의 개념 내용 (ideational content)이란 ‘경험되어진 방식에 따라 묶여질 수 있는 동사의 진행 과정(verb process)을 의미한다’고 보고, 이러한 과정 (process) 요소를 물질적 과정(material process), 정신적 과정(mental process), 관계적 과정(relational process)등의 3개 주요과정(Major Process)⁶⁾과 행위적 과정(behavioural process), 발화적 과정(verbal

6) 주요 과정(Major Process)은 다음과 같다.

- a) Relational Processes (= P:R): 존재(to be)와 소유(to have) 상태를 나타내 주는 과정
 - ㄱ) the identifying relational process: identified /P:R/ identifier (동격 /질 관계)
 - ㄴ) the attributive relational process: carrier /P:R/ attribute (소유나

process), 존재적 과정(existential process)등의 3개 마이너 과정(Minor Process)⁷⁾으로 분류한다. 또한, 과정의 참여자(participants) 요소로는 행위자(agent), 과정매체(medium), 수익자(beneficiary), 과정제한 요소(range)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과정의 장면(circumstances) 요소로는 범위(extent), 위치(location), 태도(manner), 이유(cause), 수반(accompaniment), 대상(matter), 역할(role)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기능의 3요소를 고려하여 개념적 기능 (IDEATIONAL FUNCTION)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 / Y / Z =$$

Subject / Predicative Verb Processes / Complement (and/or Adjunct)

개념적 기능의 분석을 위하여 사용되는 주요용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a) Process: finite, verb, verb particle 를 포함하는 동사군 전체

성질의 관계)

- b) Material Processes (= P:Mat): 타동성(transitivity)과 관련되어 행위자(doer)와 행위자가 미치는 영향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과정: actor/P:Mat./goal, actor/P:Mat./range
- c) Mental Process (= P:Men): 인지 및 지각 과정: senser/P:Men/phenomenon
- ㄱ) perceptive mental process (감각에 의한 지각 관계)
 - ㄴ) cognitive mental process (내적 사고 활동 관계)
 - ㄷ) Affection mental process (호·불호 관계)
- 7) 마이너 과정(Minor Process)은 다음과 같다.
- a) Behavioural process (= P:Beh): 물질적 과정과 정신적 과정의 중간과정: behavior/P:Beh/(target)
- b) Verbal process (= P:Verb): 관계적 과정과 정신적 과정의 중간과정: sayer/P:Verb/(target)
- c) Existential process (= P:Exist): 물질적 과정과 관계적 과정의 중간과정: there/P:Exist/existent

를 Process로 본다.

- b) Circumstantial Element: InF의 Adjunct와 유사하나, beneficiary라 불리는 사람 간접 목적어(human indirect object)를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부사(구), 전치사(구)등을 포함한다.
- c) Range: 물질적 과정(Material Process)내에서 행동이 미치는 범주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 d) Beneficiary: 하나의 문장내에서 혜택을 입는 '사람 간접 목적어(human indirect object)'를 나타내며, 전치사구로 변환하여 의미변동이 발생치 않는 요소이다.
- e) Transitivity: '하나의 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경험적 내용들의 의미관계들을 구현해 주는 것'으로 'type of process'로 이해된다.
- f) 개개의 과정과 관련하여 기타 다양한 용어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2.3 텍스트적 기능 (TEXTUAL FUNCTION)

텍스트적 기능 (Textual Function; 이하 TF라 약칭함)이란 개념적 의미와 대인관계적 의미를 어떻게 연결하고 순서 배치할 것인가를 다루는 기능이다. 텍스트적 기능과 관련된 요소들로는 전달매체(medium), 전달경로(channel), 전달양식, 주제체계(theme system), 정보체계, 결속성(cohesion)등이 있다. 영어에 있어서, 순서의 문제에서 파생되는 의미는 주제체계의 주제(Theme = The Process of Thematic Headling)를 살핌으로써 파악될 수 있고, 연결관계에서 생겨나는 의미를 다루기 위해서는 결속성(Cohesion = The Cohesive Aspect of Texts) 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 Halliday의 주장이다. Halliday는 영어의 경우에는 주제관계와 정보관계로 나타나는

구조적 요소(Structural Part)와 결속구조(Cohesive Part)에 의해서 문맥구성소(Texture)⁸⁾가 구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영어의 대표적인 텍스트 기능을 보여주는 예로 주제(Theme)와 결속성(Cohesion)을 들 수 있는데, 이것들의 설명과 관련된 주요용어는 다음과 같다.

2.3.1 주제(Theme)

체계기능론에서의 주제는 다른 언어이론에서의 주제개념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체계기능론에 입각한 주제에 관한 분석은 다음의 개념에 준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 a) Theme/Rheme: Theme(주제)이란 절의 처음에 오는 부분을 말하며 Rheme(제술)이란 절에서 Theme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 b) Marked Theme: 사람 주어(interpersonal subject)로서가 아닌 theme을 말한다.
- c) 한국어나 일본어의 경우 theme은 topic marker/particle에 의해서 표시되나, 영어는 절의 서두에 항상 나타나는 위치적 장치에 의해서 theme이 표시된다.
- d) Theme의 종류는 다음의 세가지로 나뉜다:

- ① Interpersonal Subject Theme,
- ② Interpersonal Complement Theme,
- ③ Interpersonal Adjunct Theme

- e) 병렬적 관계의 theme은 하나로 인정한다.
- f) 후치수식어를 갖는 theme은 전체를 하나의 theme으로 간주한다.

8) 문맥구성소(Texture)란 언어사용면에서 수용가능한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즉, 담화상에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자질을 말한다.

다. (예: “The house on the hill was mine.”에서 ‘The house on the hill’를 하나의 주제로 본다.)

g) 명령문의 경우는 두 개의 견해가 있다:

- ㄱ) Rheme만 인정하는 견해
- ㄴ) 동사를 theme으로 인정하는 견해

h) 의문문의 경우는 의문사(wh-words)만 theme으로 인정하고, Polar 의문문에서는 Mood를 theme으로 인정한다.

i) Thematic: 주제(theme)를 선행하여 나타나는 주어, 보어, 부가어, 동사등을 제외한 요소들을 말한다.

j) 주제 (Theme)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ㄱ) Nominal Group
 - = Noun Heads, Deictics, Classifiers, Epithets로 구성된다.
 - ① Noun Head: Classifier가 아닌 명사를 말한다.
 - ② Deictic = a pointer (지시사), 즉, 정관사 (‘the’) 또는 지시어 (‘this’, ‘that’)를 말한다.
 - ③ Epithet: 일종의 (성질) 형용사를 말한다.
 - ④ Classifier: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를 말한다.
- ㄴ) Qualifier:
 - 반드시 명사를 수식해야 하는 전치사구 또는 부사(구)를 말한다.
 - 반드시 명사를 수식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circumstantial element와 유사하다.
- ㄷ) Rank-Shifted Qualifier: 관계사 (who, that, which...)에 의해 이끌려지는 관계절을 말한다.
- ㄹ) Thematic equatives: theme속에 동사를 포함하는 구조, 즉thematic위치에 나타나는 종속절을 말한다.

2.3.2 결속성(Cohesion):

Halliday & Hasan(1976)에 의하면 Cohesion은 언어체계 내에서
의 결속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영어의 경우,

Cohesion의 종류는 reference, ellipsis, conjunction 그리고 lexical cohesion등 4가지로 제시되는데, 이것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a) Reference: 텍스트 상에 나타난 요소가 텍스트 내의 어딘가에
서 대명사나 지시반복어(deictic repetition)에 의해서 연결되
는 경우를 말한다.

ㄱ) Reference의 종류

Personal Reference (R:P): 대명사를 이용하여 명사를 언급하는 경
우

Demonstrative Reference (R:D): deictic이나 지시어를 사용하여 언
급하는 경우

Comparative Reference (R:C): 일반 비교어 뿐만이 아니라, 동질성,
유사성, 상이성을 나타내 주는 비교형용사에 의하여 언급되는 경우

ㄴ) Reference 의 방향 (표시)

Exophoric: R:P에서만 보여지는 경우로 텍스트를 벗어난 지시.언급
을 말함.

Homophoric: 'the'의 비지시적 언급 또는 텍스트를 벗어나지만 상
식적 관점에서 언급.지시되는 경우

Cataphoric: forward reference를 말한다.

Anaphoric: 가장 일반적인 reference로 backward reference를 말한
다.

- b) Ellipsis (Substitution): 텍스트가 생략에 의해서도 연결되는 경
우를 말하는데, ellipsis 중에서도 다른 어휘를 사용하여 대치
(replacement)하여 생략을 하는 경우를 substitution이라 하고
완전히 삭제(total deletion)된 경우를 ellipsis라 한다.
- c) Conjunction: 쉼표나 마침표등에 의하여 의미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고립된 절(Clause)이 담화상에서 연결되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나뉜다.

- ㄱ) Elaboration: 후속절이 앞서 벌어진 상황을 부연설명해 주는 경우를 말함.
 - ㄴ) Extension: addition, variation, opposition ('on the other hand' type)에 의한 결과로서, 하나의 명제(proposition)가 확장되어 가는 경우를 말함.
 - ㄷ) Enhancement: 절이 시공간적내지는 인과관계('therefore' and 'then' type)에 의하여 연결되는 경우.
- d) Lexical cohesion: reference와 유사하나, 유의어(synonym)끼리 연결하는 경우를 말하며 의미가 서로 연계되는 단어끼리의 반복도 포함한다.

- ㄱ) Repetition: 단어의 반복을 통하여 연결되는 경우
- ㄴ) Collocation: 원인-결과적 관계의 단어끼리 연결되는 경우
- ㄷ) Synonymy: 유의어끼리의 연결 관계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③ Syn:Id = Identity of Reference Synonymy: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지시어끼리의 관계
 - ④ Syn:Hyp = Hyponymy: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관계로 확대되는 유의어끼리의 연결 관계 (예: 사자는 멧있는 동물이다: 사자-동물)
 - ⑤ Syn:Mer = Meronymy: 부분이 전체를 나타내는 관계에 있는 유의어끼리의 연결 관계-제유관계 (synecdoche)

2.3.3 결속성 이론의 적용

체계 · 기능론의 이러한 결속성이론을 적용하여 살펴 볼 수 있는 영어의 현상들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a) 주제 · 서술 관계와 신 · 구정보 관계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영어의 경우는 주제를 전반부에 배치하는 특성이 있음을 살펴으로써, 영어가 문두 중심어임을 설명할 수 있다.
- b) 신 · 구정보 관계에 있어서 영어의 경우 신정보는 문말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고, 신정보는 음운군(tone group)과 유표적인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을 살필 수 있다.

- c) 발화가 발신자 지향성인가 수신자 지향성인가에 따른 언어의 결속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로, 영어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인 명사구와 동사구의 결속 관계를 살펴 보면, 명사구, “these two lovely long electric trains”의 경우, 발신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요소인 지시사(deictic) these와 심정적 형용사(attitudinal epithet)인 lovely는 발신자 지향 요소들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발신자 지향요소들은 문두에 배치되는 경향을 영어의 결속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영어 정형 동사구의 경우에 있어서 시제, 양태사, 본동사등의 배열 관계도 지향성(orientation)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들간의 배열 관계를 볼 때, 발신자 지향요소가 문두에 배치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영어의 경우 수신자 지향성 요소는 문말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는데, 아래의 예들이 그러한 경우라 하겠다.

예①: 부가의문문 (You are tired, aren't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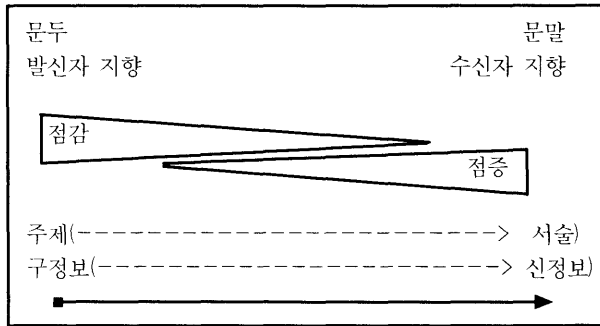
예②: 호칭어 (How are you, John?)

예③: 대인 관계 요소 (Open the window, please.)

위의 예문에서 밑줄 친 부분은 수신자 지향성 요소들은 문말에 배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속관계는 체계기능론의 관점에서 잘 파악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영어의 경우, 주제관계, 정보관계, 지향성 관계를 결속성의 관점에서 <도표 2>와 같이 정리하여 보여 줄 수 있다.

<도표 2>



2.4 다기능의 통합적 이해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체계·기능론에서는 언어의 의미는 다기능적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러한 체계·기능론의 다기능론적 관점에서 아래의 예문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자.

예: On Sunday perhaps we'll take the children to the circus, shall we?

Halliday는 위의 예문에서는 개념적 의미, 대인관계적 의미, 그리고 텍스트적 의미가 각각 다른 구조내에서 실현되어져 통합적 의미로 나타난다고 보고, 그러한 다기능적 개념을 다음과 같이 도표로 나타내고 있다. (일본 현대영문법 사전: 1465)

On ~Sunday ||~ perhaps ||~we ||~ 'll | take | the children | to ~
the circus ||shall ~ we

개념적 기능				동작주	과정	과정매체			
	위치(시간)						위치(장소)		

대인관계적 기능		modality	주어	정형		정형	주어
			법 →			→ 법	
	심적태도1	심적태도	----->				심적태도3

텍스트적 기능	주제1	주제2	주제3	제술(rheme)		
	주제 (theme)					
신정보1		구정보----->		신정보2		신정보3

// 4^ on / Sunday per // 1 haps we'll / take the / children to the /
circus // 2 shall we//

위의 표기에서 숫자는 음조를, 기호는 각각 다음을 의미한다:

^ = 묵음, 대문자 = 강세음절, // = 음조 경계,
/ = 운각경계, 음조숫자는 2.1항 참조

이상의 예는, 체계·기능론에서는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기능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또한, 의미에 영
향을 주는 발화자의 말씨나 음성까지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언어사용역(Register)과 언어문화역(Genre)

사회적 맥락과의 직접적인 연계없이 언어의 형태와 기능은 설명될 수 없다고 체계기능론자들은 주장한다(Kress and Hodge 1979: 13). <도표 1>에서 이미 언급한 것으로써, SFG에서는 언어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언어문화역(Genre; 이하 장르라 함)과 언어사용역(Register; 이하 레지스터라 함), 그리고 언어와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 관계의 작용공간으로서의 맥락(context)과 텍스트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개념들이다. SFG에 있어서, 맥락이란 언어와 그 환경 사이의 체계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텍스트란 유의미적인 것으로, 하나의 텍스트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의미단위(a semantic unit)이다. 즉, 텍스트는 체계적인 구조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물이자 의미적 선택의 연속적 과정에 있다. 또한, 텍스트는 의미의 사회적 교환물(a social exchange of meanings)이다. 텍스트는 하나의 특정 상황 맥락에 있어서의 사회적 의미의 산물이자 사회과정의 한 실례이다. 따라서, 상황맥락은 사회 환경과 언어의 기능적 구성 사이의 체계적 관련성을 가지고 텍스트 속에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계·기능론자들의 언어관은 사회적 맥락과 깊게 관련되어져 있다.

사회적 맥락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체계기능론자들은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동질체로서의 문화에 주목하며, 언어는 세계관과 기본 원리에 근거한 규칙과 규범의 체계란 점에 주목한다. 또한, 그러한 세계관은 언어속에 배어 있고, 언어를 통해서 익히고, 언어사용을 통해서 강화되어진다는 것에 주목한다.

따라서, 언어를 사회적 기호체로 보는 체계기능론에서는, 텍스트와 맥락(context) 사이의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 이념적(ideological) 요

소들을 관련지어주는 복합체계를 레지스터(register)이론내지는 장르(genre)이론에 의해서 설명을 시도한다.

3.1 언어사용역(Register)

Halliday(1978: 32)는 “레지스터(Register) 이론은 다양한 상황을 지배하는 일반 원칙을 찾아냄으로써, 어떤 상황적 요소가 어떤 언어 자질을 결정해 주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정의한다. 레지스터란 용어의 사용은 1960년대 이후부터 일반화 되었지만, 원래는 Reid가 1956년에 처음 사용하였고 Halliday (1964, 1977)와 Ure and Ellis (1977)에 의하여 발전된 것이다. Halliday & Hasan (1985: 41~43)에서는 레지스터를 방언(dialect)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기도 한다:

- a) 레지스터: 개개의 화자는 다양한 언어 변이체(varieties)를 갖고 있고, 시공간이 다른 상황에 따라 그것들을 선택한다는 면에서, 레지스터란 사용에 따른 하나의 변이체(=a variety according to use) 라고 정의한다.
- b) 방언: 개개의 화자는 하나의 언어 변이체를 모든 상황에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방언은 사용자에 따른 변이체(a variety according to user)라고 정의한다.

즉, Halliday(1964)는 ‘여러 문맥속에서 언어가 작용하는 것을 관찰해 보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되는 언어형태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Halliday(1976)에서는 레지스터란 상황자질(= field, mode and tenor)과 관련된 언어자질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음을 주장하여 하나의 텍스트의 언어적 구조를 상황맥락과 연결지어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후, Halliday에서는 레지스터를 의미적 형태(semantic patterns)와 문맥(context) 관점에서 다음과 같

이 기술하고 있다.

“Register is the set of meanings, the configuration of semantic patterns, that are typically drawn upon under the specified conditions, along with the words and structures that are used in the realisation of these meanings (Halliday 1978: 23). Register is determined, by what is taking place, who is taking part and what part the language is playing(Halliday 1978: 31).”

Halliday는 또한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속에서 레지스터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A register can be defined as the configuration of semantic resources that the number of a culture typically associates with a situation type. It is the meaning potential that is accessible in a given social context(Halliday 1978: 111).…While register may be recognised by its formal (i.e. linguistic) characteristics, its structure is semantic.”

Halliday의 이러한 관점은 레지스터의 특성을 일차적으로 문맥적 성분요소(contextual elements)로 보고 이차적으로 언어적 성분요소(lingusitic elements)로 보는 것이라 하겠는데, 이러한 견해는 여러 학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로, Gregory and Carroll (1978: 64 & 4)에서는 레지스터란 “a useful abstraction linking variations of language to variations of social context,” 혹은, “a cotextual category correlating groupings of linguistic features with recurrent situational features”라고 보는데 이는 텍스트와 맥락의 관계속에서 레지스터를 정의하는 Ure and Ellis의 다음 견해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즉, Ure and Ellis (1977: 251)에서는 레지스터를 “a linguistic category, a property relating a given text, in terms of its fomal, phonological or graphological, or substantial, features to simil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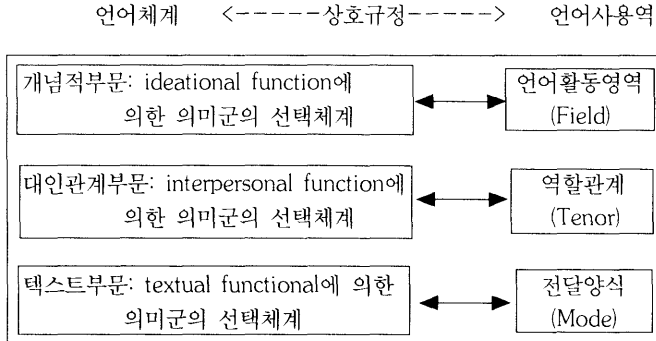
texts in comparable situations, and thereby to features in the situation of utterance or composition”이라고 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레지스터의 특성은 상황적 변수와 언어적 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모든 언어를 다기능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체계기능론의 이론적 근거에 따라 레지스터는 3개의 하위 성분인 언어활동영역(Field), 역할관계(Tenor) 그리고 전달양식(Mode)으로 세분될 수 있다.

언어활동영역(Field)이란 담화상에서 사회적 행위의 본질에 대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개념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역할관계(Tenor)는 담화상의 관련인물 및 그들간의 역할이나 관계에 대한 것을 말하며 대인관계적 기능과 관련되어져 있다. 한편, 역할관계(tenor)는 다시 힘(Power) 관계, 접촉(Cotact) 관계, 감정관련(Affective Involvement) 관계등의 3개의 하위성분으로 구분되어진다. 전달양식(Mode)이란 담화상의 언어가 갖는 역할을 말하며 텍스트 기능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전달양식(Mode)은 이와 관련된 친소관계적/공간적, 또는 경험적 거리감(Distance)과 전달통로(Channel)가 말 또는 글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두 개의 혼합방식에 의한 것인가에 따라 세분되어 설명되어질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체계·기능론에서는 하나의 기호체계, 즉, “언어체계(Linguistic System)와 언어사용역(Register) 사이의 상호 규정체”로 언어를 본다고 하였다. 또한, 언어 체계는 다기능적 관점에서 개념적부분(ideational component), 대인관계부분(interpersonal component), 텍스트부분(textual componen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사용역도 다기능적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언어체계 성분과 레지스터 성분간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다음과 같이 통합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일본 현대영문법 사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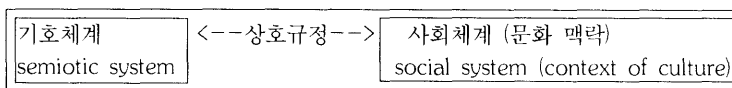
언어



3.2 언어문화역(Genre)

Halliday는 언어문화역(장르 genre)은 언어사용역(register)과 중복되는 개념으로 보았고, 구분해야 한다면, 문학적 분석에 제한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Kress & Threadgold (1988: 216)는 장르란 본질적으로 한 사회내에서 사회적으로 공인된 텍스트 형태(the socially ratified text-types in a community)라 정의한다. 이러한 Kress & Threadgold의 견해는 언어학을 사회언어학적인 관심에서 문화인류학적 관심까지 확대하여 언어를 설명하려는 체계 · 기능론의 확대된 이론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르적 관점에서의 문화는 “특정한 의미를 공유하는 기호체계와 사회체계 사이의 상호관계 규정체”라 정의될 수 있으며,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



장르이론적 접근(Genre-based approaches)은 쓰기교육지도(writing development)와 관련한 Hasan(1978), Kress(1985), Martin(1984)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아직은 그 이론적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4. 맺는 말

이상에서 구체적인 적용의 예는 보이지 않았지만, 체계·기능이론의 일반적인 주요 개념을 기술하여 보았다. 체계·기능언어이론은 대표적인 기능론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기술에 있어서는 거의 적용의 예가 없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한국 언어학의 지평을 넓혀주는 데도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형식언어학의 이론에 대비되는 대표적 기능론으로서의 체계기능론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맺는 말로서, Leech의 글을 인용하여 체계기능론의 특징을 요약하여 본다면, Leech는 형식론의 대표를 Chomsky, 기능론의 대표를 Halliday로 하여, 형식론과의 비교 관점에서 체계·기능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Leech 1983: 46)

- 가) 일차적으로 형식론에서는 언어를 하나의 심리적 현상 (mental phenomenon)으로 보나, (체계)기능론에서는 언어를 하나의 사회적 현상(societal phenomenon)으로 본다.
- 나) 형식론자는 언어 보편성(linguistic universals)을 인간 공유의 발생적 언어 유전자질에서(a common genetic linguistic inheritance of the human species) 도출되는 것으로 설명하

나, 기능론자는 언어 보편성을 인간사회속에서의 언어 사용의 일반성에서 (the universality of the uses to which language is put in human societies) 도출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다) 형식론자는 아동의 언어 습득을 인간의 내재 능력 (a built-in human capacity)이란 관점에서 설명하나, 기능론자는 이것을 사회속에서의 아동의 통화적 필요성내지는 통화능력의 발달 (the development of the child's communicative needs and abilities in society)이란 관점에서 설명한다.

라) 형식론자는 언어를 하나의 자립 체계 (an autonomous system)로서 연구하나, 기능론자는 언어를 사회적 기능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language in relation to its social function) 연구한다.

참고문헌

- 荒木一雄 & 安井. 1992. 現代英文法辭典, 東京: 三省堂.
- Geoffrey Leech.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 Graham Lock. 1996. *Functional English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Gunther Kress. 1976. *Halliday: System and Function in Language*, London: Oxford Univ. Press.
- Gunther Kress. 1985. *Linguistic Processes in Socio-cultural Practice*, Geelong: Deakin University.
- J.R. Martin. 1984. "Language, Register and Genre". F. Christie [ed.] *Children Writing: reader*, 21-29, Geelong: Deakin University.
- J.R. Martin. 1992. *English Text*,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John O'carroll. 1989. "Notes on Halliday: A What, How, and Why of Systemic-Functional Grammar". *Principles of Language and Reading*. Perth: Murdoch University.
- Kress & Hodge. 1979. *Language and Ideolog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Kress & Threadgold. 1988. "Towards a Social Theory of Genre". *Southern Review* 21(3). 215~243.
- M.A.K. Halliday. 1973. *Explorations in the functions of Language*, London: Edward Arnold.
- M.A.K. Halliday. 1975. *Learning How to Mean - Explorations in the Development of Language*, London: Edward Arnold.
- M.A.K. Halliday. 1978. *Language as social semiotic*, London: Edward Arnold.
- M.A.K. Halliday. 199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Edward Arnold.
- M.A.K. Halliday & J. Martin. 1981. *Readings in Systemic Linguistics*, London: Batsford Academic and Education LTD.
- M.A.K. Halliday & R. Hassan.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 M.A.K. Halliday & R. Hassan. 1985. *Language, Context, and Text:*

-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semiotic Perspective*,
Geelong: Deakin University.
- M.Gregory & S. Carroll. 1978. *Language and Situa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R. Hasan. 1984. "The Nursery Tale as a Genre". Nottingham Linguistic
Circular 13. 71~102.
- Threadgold, T. 1988. "The Genre Debate". Southern Review 21(3). 31
5~330.
- Ure, J & J. Ellis. 1977. "Register in Descriptive Linguistics and
Linguistic Sociology". O. Uribe-Villas [ed.] *Issues in
Sociolinguistics*, 197~243. The Hague: Mouton.

정재훈 (Jae-Hoon Jung)
School of Languages and Linguistics
Griffith University
Nathan, Queensland, 411 Australia
Tel : (61-7) 3875 5141
E-Mail : J.Jung@mailbox.gu.edu.au